

People & Life

20년째 지적장애인 화폭에 담아 전시회 여는 서양화가 김근태씨

“그림속 장애인은 나의 자화상이자 신앙”



20여년간 지적장애인의 내면을 화폭에 담고 있는 김근태 화백이 1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자신의 작품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5·18민중항쟁을 거친 후 목포 문태고등학교에서 교사로 5년간 근무한 후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풍경화 작품 위주의 그림은 국전에 당선되기도 하는 등 각광을 받았으며 공부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1년간 하기도 했다. 이후 인물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소외계층의 삶을 화폭에 담아냈다.

특히 목포 고하도에 모여 사는 150여명의 지적장애인을 만나면서 그의 화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간 자신이 소외계층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추구했던 가치를 지적장애인을 그리면서 표현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지적장애인은 나의 자화상이자 인간 세상 모든 사람의 초상화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동정과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화백은 이후 2년에 한 차례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보는 천국과 지옥을 표현해 내는 것은 화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목표인 셈이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se@

14일부터 목포문화회관에서 개인전 파리에 초청 받아 초대전 열기도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가 되어 갔다. 특히 일반인도 함께 화폭에 등장시켜 주연인 그들을 빛내는 조연으로 그렸다. 일반인은 말로만 장애인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발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김 화백은 모든 작업을 목포 공생재활원과 목포 장애인요양원 등에서 지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순수한 그들의 영혼을 담았다. 3년간 그들과 함께 살면서 놀기도 하고

화백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996년 첫 번째 전시회를 가진 이후 파리에서 초청을 받아 초대전을 열기도 했다.

김 화백은 “지난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조선대 미술학과 학생으로서 사대수습위원으로 수많은 사체를 수습하고 자칫 혼란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을 했었다”며 “이 때부터 인간의 내면 세계

“지역민 사랑받는 대학 만들겠다”

순천대 총장 후보자 1위 당선 임상규 교수

“고향에 내려와 교수직을 맡은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총장에 도전해 후보자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이기에 앞서 순천대를 발전시키려는 소망이자 지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11일 끝난 순천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임상규(62·웰빙자원학과 교수) 후보는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순천대를 ‘미래를 개척하는 지역적 명품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 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구조가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반목하고 갈등하는 구도를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인화나 대학 간 통합, 연합 등 외부적인 여건에 대비한 구조조정 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구성원



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의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연구 기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특성화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대학의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하는 데도 중점을 둘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대학은 연구·교육 기능이 우선이지만 그동안 순천대가 지역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등 소통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던 만큼 지역 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회복해 지역민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거점대학으로서 거듭날 생각입니다.”

전 정권의 고위관료라는 점이 총장 임용 후 현 정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관련, 임 후보는 “(나는) 정치권과 아닌 직업관료였고, 그동안 실무자나 정치권, 언론 등 나름의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면서 “순천대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상규 총장 후보는 순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과학기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농림부 장관 등 중앙부처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뒤 현재 순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ia@

서강정보대학 치과위생사 선서식



서강정보대학(총장 김정수) 치위생과는 11일 대학 서정홀에서 김정수 총장, 황윤숙 대한치위생과교수협회 회장, 배용 광주시치과의사회장, 학부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치과위생사 선서식'을 가졌다. <서강정보대 제공>

농협 전남본부 식품안전·원산지 관리 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최근 본부 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농협판매장 식품안전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선거와 패스포트’ 수행

신문협회, 학생 추가 모집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1일부터 일반 여권을 본 따 만든 NIE(신분활동교육) 워크북인 ‘선거와 민주주의의 패스포트’ 활동 과제를 수행할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신문협회는 지난 6일부터 패스포트 활동에 참가할 전국 초·중·고생 5천명을 모집했으나 조기 마감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의 협조를 받아 워크북 5000부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 워크북은 학생들이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기사를 활용한 20개의 활동과제를 담고 있다. 활동과제를 수행할 학생은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내방

▲김준원(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장)씨

‘김용근 민족교육상’에 이승요 늦봄학교 교장

김용근 기념사업회(회장 김희택)는 16회 김용근 민족교육상 수상자로 강진군 ‘늦봄학교’ 이승요(여·47·사진) 교장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교장은 2005년 늦봄학교 설립준비위원과 교사 준비위원장을 지내고 2006년부터 교장을 맡았다.

늦봄학교는 고 늦봄 문익환(1918~1994) 목사의 민족통일과 평화화를 향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대안학교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사단법인 늦봄평화교육사업회 주도로 2006년 개교해 중·고통합 기숙형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1학년(중1)~5학년(고2)까지 103명이 공부하고 있으며 아직 졸업생은 없다.

김용근 선생은 1917년 강진군 작천면에서 태어나 해방 후 연세대 사학



과를 졸업하고 전주고, 광주고, 광주일고, 전남고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뒤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5·18과 관련돼 찾아온 제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투옥됐다. 제자들은 추모문집(편집위원장 황지우 시인) 등 기념사업을 해오다가 족이 기증한 5·18 보상금 일부와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교육상을 제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고인의 묘가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남철희 choul@kwangju.co.kr



주민 초청 발마사지·장수사진 찍어 드리기

광주여대 강진서 봉사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최근 강진군 군동면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태마 봉사’ 행사를 가졌다. 광주여대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명은 이날 강진군 군동면 복지회관에서 군동면 권리·동동·

덕천·석교 마을의 주민 200여명을 초청, 식사제공·발마사지·혈관노화검사·피부관리·메이크업·장수사진 촬영·물리치료·무용공연 등 지역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6시 상부지구 고다미. 010-4604-2958.

종친회

▲문화류씨 하정공파 광주종친회(회장 류수택) 유적지 답사=16일(일) 오전 8시30분 모자보건센터 앞 출발. 010-3051-2415.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신앙특강 ‘예수는 정말 부활했을까?’(이제민(에드워드) 신부(미산교구 반송성당 주임신부)) 개최=18일(월) 오후 5~6시30분 조선대 중앙도서관 7층 영상 세미나실, 시민이든 누구나 참석 가능, 주최 조선대

학교 가톨릭 교수회, 이제민 신부는 ‘말은 시들지 않는다’의 28권의 저서를 집필.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모집

▲지역문화교류회남매단 무릎아 트럼페터 사원모집=문화예술전문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마케팅부 부장·사원 모집 17일까지, 062-234-2730. ▲씨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 페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산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모집= 잠수교육, 스낵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시계·베개·주차중·방석·액자·지갑·핸드폰줄 제작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우터연합회 사회인 야구팀에 관심과 자질이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943, 010-2611-7787.

▲맘보뷰어터 살사동호회 회원 수시모집=총장로 3가 총과 앞 터바다담 지하, 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골드윈 여성 팍스 중창단 모집=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

성으로 공연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포럼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 수시모집=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쌍촌동 원불교 송곡.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 모집=요가를 배우고 싶은 분 모집. 관장 박성택. 010-3636-1758.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복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부음

▲백운에서 별세 하윤금·동해·윤자(영산포여중 교사)·금안씨 모친상 허장복(순천 상동초교 교사)·박병식(금호중기 대표)·곽창복(보성예당초교 교사)씨 빙모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정영택씨 별세 태환·태중·경희·형덕·형남·형숙씨 부친상=발인 12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이건배씨 별세 옥만·경환·장한·덕한씨 부친상=발인 1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박진금씨 별세 박삼길·은균·삼성·철균·영자·영이·해자씨 모친상=발인 1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재남씨 별세 철·송주씨 부친상=발인 12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마을까지 편안함 - 금홍장례식장 ☎27-4000

▲이미레님(여·87세) 주/부/부 고생모 / 문경지/교서/김학숙/여/재 고복순/고복민/김태일/고복자/김경남/고복희/부/재/고복근/김우길

호실	목성101호
발인	06월 12일
장지	영락공원

▲여계순(여·85세) 주/부/부 유진승/김효연/유승환/여/재 유미리/김석구/유영희

호실	호실 101호
발인	06월 12일
장지	영락공원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주차장 - 정갈한 음식!

국가대표 브랜드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자랑합니다

기입문의 1688-3740 현대종합상조 권속국 노후친